

● 海外電子市場情報

美 80년 VTR 輸入 92만台

- 금년 輸入은 130만台 예상 -

美国은 작년에 VTR 輸入 台数가 그 전년도에 비해 54%가 증가한 92만台에 달했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日製이며, 금년에 40%가 증가한 130만台를 輸入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美 商務省이 발표했다.

美國의 TV 메이커는 産業用 VTR만 생산하며 일반용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美国의 VTR 市場은 일본 제품에 의해 독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美 商務省에 따르면 78년 이후의 VTR 輸入 台数 누계는 200만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음향 비디오제품(半製品포함)은, 日本, 自由中国, 홍콩 등에서 輸入을 하며, 80년도에 비해 70%가 증가한 47억弗이나 된다. 그 가운데 비디오게임은 8,300만Fr인데 지난해의 4배나 되는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美国内에서 조립하는 컬러 TV用 부품 수입은 19%가 증가한 5 억 6,000만Fr이다. 그 중에서 약40%를 차지하는 부품 수입은 멕시코에서 수입된 것이며, 이밖에 日本, 싱가폴, 필리핀 등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다.

欧美 電子메이커 自由中国 進出 활발

- 對中共 進出의 장기 포석 -

최근 欧美 電子機器 메이커의 自由中国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는 自由中国 당국이 아시아에 대한 정보산업의 거점화를 목표로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電子産業 육성 10개년 계획」에 호응한 것이다. 작년의 해외업체 對自由中

國 新規投資額은 전년에 비해 4%가 증가한 4 억 8,000만Fr에 달했는데, 증가분의 대부분은 電子産業이었다.

작년의 신규 진출 Big 3으로 일컬어지는 自由中国 進出의 美国企業은 TI의 IC, RCA의 TV部品, GTE 인터내셔널의 전자교환기의 3개 공장으로 投資額은 어느 회사나 150만Fr이다.

한편 西独의 구룬디히社가 高雄의 自由易域 地帶에 있는 흑백 TV 투너 공장을 확장하여 컬러TV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란의 필립스社는 生產工程의 現代化를 계획하고, 미국의 제니스社, 암팩스商社는 오디오 공장을 증설하는 등 기존 企業들도 대폭적인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自由中国은 작년에 29억Fr에 차지하여 수출액의 15%를 차지하여 수출 1위인 섬유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같이 「10개년 계획」이 해외업체의 호응으로 순조롭게 진행 되는데 자신을 얻은 自由中国은 금년 7 월부터 自国의 電子機器 관련메이커의 新規 進出에 대해 投資 수속을 간소화 하는 동시에 稅制面에서도 우대 조치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自国業界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自由中国의 3大 메이커인, 大同(연간생산고 약 7 억Fr), 聲寶(약 2 억Fr), TECO(약 1 억Fr)는 점차 外國資本에 대항 할 힘을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大同」과 「聲寶」는 이미 美国内에 TV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업체(77년 현재 약 1천개社)는 소규모 組立공장을 가지고 있어 연간 매상액도 1,000만Fr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自由中国은 이런 영세 업체 때문에 10개년 계획의 하나로 台北近郊에 「科學公園」을 조성

했다. 이곳은 美加州의 스텐포드 인터스트리얼公園을 모방한 것으로, 이 공원에 소규모 전자 관련산업을 集束시켜서 공업단지화를 계획하고 있는바 이미 14개社가 進出하고 있으며, 당국은 앞으로 10억弗을 더 들여서 이「科學公園」을 정비, 확장 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와같이 自由中国이 아시아의 情報産業 基地로서 주목되게 된 이유는

첫째,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자가 풍부하며, 둘째, 部品 機器類의 현지 조달이 가능하며, 세째, 생산 코스트가 싸게 먹히는 이점이 있으며,

네째, 당국의 적극적인 장려책이 있다.

그러나 최대의 이유는 가까운 장래에 기대되는 中共本土의 대량수요를 내다보는 국제적인 추세에 민감한 自由中国 정부의 정책적인 안목에 있다 하겠다.

西獨·스테레오 TV開発

- 日製 컬러TV 타도를 목표로 -

西獨의 TV 메이커들은 곧 스테레오 TV를 시판할 계획이다. 西獨의 한 국영 TV 방송국은 오는 9월부터 특정 프로그램을 신설, 스테레오 방송으로 올해 안에 약 90여회 방송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西獨의 이 新開発 TV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日製 컬러 TV와 판매경쟁에서 새로운 기술로 경쟁에 이기겠다는 노력이 작용한 것이다.

西獨이 개발한 이 스테레오 TV는 두개의 별개 음성채널로 운용되며 단일 음성채널로 수신될 때보다 결코 방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스테레오 시스템에는 두개의 중요한 특허가 나있는데 西獨의 10여개 주요 TV 메이커들이 이 특허권을 구입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스테레오 TV는 일반 TV보다 약 30% 정도 값이 비싸지만 소비자들은 스테레오 시스템의

특별한 가능에 흡족해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테레오 TV의 특성중의 하나는 외국영화를 시청할 때 한 음향 채널에서는 원음 그대로를, 다른 채널에서는 독일어로 들을 수 있는 점이다.

최근 日本의 新製品

- 오디오, 비디오의 多機能, 小型, 軽量化 -

최근의 日本 新製品은 획기적인 技術開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인기 상품을 한층 확대하여 小型, 軽量化한 포터블 제품으로서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한편 大型 제품에 못지 않게 多機能화한 것이다. 그리고 生活用品 가운데에서도 대폭적인 변경보다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潜在需要를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포터블 VTR

家電製品의 왕좌는 이제 VTR이 대신하게 되었다. 80년의 日本 内 出荷台数는 90~95만대였으나 81년엔 135~150만台까지 신장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주목되는 것은 포터블型이다. 日本의 각 VTR 製造業体에서는 전체에 절유하는 포터블의 비율은 80년의 25%에서 금년에는 30~5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테이프 매상도 急伸張하여 금년엔 前年對比 약 40%가 증가한 2,000만台까지 이를 전망이다. 테이프까지 합한 VTR 관련 製品市場은 금년에 1조 1,000억(80년 7,670억円)으로 컬러TV 市場을 훨씬 앞서리라는 전망이다.

製品의 경향은 小型・輕量化되고 있다. 소니가 최근 발표한 新製品은 폭 21.5cm, 두께 30.5 cm, 높이 8 cm, 용적은 약 5.2ℓ로 종전의 最小型(약 7.9ℓ)보다 30%나 小型化하고 무게도 4.4kg보다 적은 4.2kg으로 더욱 軽量化되었다.

이와 같이 포터블化한 것은 部品 数가 35%

● 海外電子市場情報

나 감소되고 回路基板도 小型化되었다. 특히 헤드 드럼(테이프 安全送致장치)이 종전보다 약 절반(5.4cm)으로 줄어들었다. 소니의 新製品은 機能이나 무게, 크기가 포터블화 되었지만 1 세트(SL-FI, TT-FI, NP-1) 가격이 종전의 최저 가격인 빅타社의 製品보다 10만円이 비싼 50만 4,000円이라는 게 흥이다.

2. 마이크로 카세트 관련 製品

종전에 테이프 레코더 市場의 일부분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마이크로 카세트가 현재는 多機能化되어 마이크로 카세트 機器로서 하나의 独立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의 国内需要는 单一型을主流로 79년 50만台, 80년 75만台(前年對比 50% 증가)였으나 금년에는 105만台(40% 증가)에 이를 전망이다.

종전의 製品은 포터블化하여 휴대하기 쉬운 것이 장점으로 雖然, 學習, 재 저用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엔 音質을 중시한 音樂用의 製品이 요구되어 급격히 스타레오화 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 카세트는 松下(RN-2, 600) 외에 三洋電機(MR-88), 아이와(CS-M1), 東芝(RN-260)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新型製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三洋電機의 RD-XMI는 回転速度 향상과 메탈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音樂用이다. 또한 샤프의 3P-MIU는 TV, 라디오, 카세트가 三位一体로 된 복합 제품이다. 이 製品은 音聲多重機能을 갖추지 않았으면서 音聲多重 효과를 낼 수 있다. 外型의 크기는 폭 38.5cm, 두께 13.6cm, 높이 12.9cm, 무게 2.5kg으로 小型, 軽量化되었으며 가격은 7만 9,800円이다.

업계측에서는 레디카세트(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의 需要가 81년에 550만台 중에서 60%는 스타레오型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세트 관련 機器는 앞으로 家庭用市場의 하나인 主製品이 될 것이다.

3. 小型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오늘날 情報化 시대를 맞이하여 小型 카세트 레코더가,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知的 武器로서 會議, 會談, 語學연습, 음악감상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금년의 日本 内需要는 180만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東芝의 루포-1980(KT-1980)은 많은 情報機能을 갖추고 있다. 현재 루포-1950을 改良하여 금년 2월에 発売한 것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FM電波(78.5MHZ 내외)를 発信할 수 있는 機能을 가지고 있으므로 FM을 수신할 수 있는 大型 라디오 카세트 레코더나 콤포넌트 스테레오 등과 병용하면 다른 용도의 온에어 機器가 된다. 예를 들어 테이프에 녹음한 정보를 FM電波로 송신하면 멀리 있는 라디오에서 수신할 수 있다. 操作이 간단하여 이와 같은 機能은 會議場 같은 큰 방에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루포-980은 또한 와이어리스 마이크의 역할을 하면서 音聲을 테이프에 동시 녹음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機能은 빨리 듣기 위한 再生機能이다. 루포-980은 약 1.3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재생이 가능하여 종전의 片面 30分이 약 23분으로 단축된다. 이러한 多機能器의 外型 크기는 폭 179mm, 높이 86mm, 두께 19.8mm로 안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이며 365g으로 가볍다. 價格은 3만 6,800円이다.

美電子産業 対日貿易 불균형 심화

- 컴퓨터 부문의 우위로 점차 악화 -

美國은 電子産業 부문을 제외한 여타의 전자 전기 부문에서 대일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電子産業 분야에서 対日貿易 역조 폭이 거의 40억弗에 달하며 電信·電話 부문에서도 1억 5천 800만Fr에 달하는 対日貿易 역조 폭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자 부문은 더욱 나쁜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80년도에 미국

은 일본에게 23억弗을 지불 해야만 했다. 최근 수년간에 对日貿易 역조록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적은 감소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美國은 对日貿易에서 단지 컴퓨터 부문만이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우위도 과거 5년동안에 6:1의 비율에서 3:1의 비율로 떨어졌다. 일본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공급면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市場의 더 많은 부문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美國으로 볼 때 밝은 측면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상호 半導体 수입 관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점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일본은 현행 半導体 수입 관세율 10.1%를 4.2%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현행 5.6%를 4.2%로 낮추어 상호 동등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80년도 对日貿易 균형은 도표의 8개 부문 중 6개 부문이 79년에 비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단지 2개 부문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美 電子産業 対日 貿易收支 現況

()부분은 수입 그외는 수출을 표시
(단위: 백만弗)

구 分	1977	1978	1979	1980
전 신 전화기 기	4.4 (44.9)	-6.3 (92.9)	8.1 (105.6)	6.6 (163.3)
전자시스템 및 기기 군수용, 산업용	51.6 (781.5)	49.2 (391.1)	66.4 (350.4)	76.9 (438.6)
전 차 부 품	133.0 (371.5)	172.3 (502.0)	253.4 (698.6)	238.2 (836.0)
가정용전자제품	25.2 (2,047.7)	37.2 (2,757.7)	55.4 (2,350.7)	61.6 (2,337.1)
전 차 계 산 기	279.5 (57.9)	331.1 (187.2)	441.1 (195.7)	607.3 (189.3)
계산기 및 관련제품	12.3 (240.0)	19.2 (338.8)	18.5 (300.3)	22.2 (373.3)
타이프라이터 및 사무용 기기	12.4 (203.0)	13.6 (190.0)	19.7 (226.9)	25.5 (256.6)
사 진 복사 기 기	14.6 (163.9)	13.9 (290.3)	16.1 (307.9)	17.7 (424.0)
계	532.9 (3,910.6)	642.7 (4,745.1)	878.7 (4,536.1)	1,056.0 (5,012.2)
무 역 수 지	-3,377.7	-4,102.4	-3,657.4	-3,956.2

● 新刊 ● 電子工業二十年史

한국 電子工業의 20년 역사의 발자
취를 集大成하여 편찬한 책자로서 고
난과 역경의 과거를 정리하고 대망의
80년대를 기약하는 좌표이자 教訓書.
4×6배판 · 양장 케이스 · 400면.

韓國電子工業振興會